

교육은 사다리인가?

사람들은 흔히 교육이 삶에서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교육받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잘 교육 받으면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계층도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우리 대부분은 교육이라는 사다리가 경제적 빈부나 사회적 귀천을 따지지 않는 공정한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신념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신념에 대하여 각자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한 나름의 근거도 가지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면,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과 같은 국제적 행사에 초청받아 연설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초등학교를 간신히 다닌 나의 부모나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줄도 모른 채 유년기를 보냈던 나의 조부모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내가 교육을, 그것도 질적으로 뛰어난 교육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이 우리의 삶에서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육은 사회의 여러 불평등을 해결하는, 특별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특급의 방책이라 할 것이다. 교육은 좋은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서 주창한 바대로 모든 사람은 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교육으로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 국가의 번영이 가능하다.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근대 국가의 이상이였다. 유네스코가 이른바 만민교육(education for all)을 내세운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이 사다리여야 한다는 신념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과 군사 독재정치에 항거하며 민주화를 성취한 현대 한국인의 심성에도 깊이 새겨져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이라는 말을 한국인 누구나 공감한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는 교육의 사다리 역할을 복원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한다. 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교육이라는 사다리에 부정부패가 개입한다면 당사자는 합당한 법률적,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인 대부분은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교육받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기회는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높아지고 넓어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제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했으며, 좋은 일자리도 늘어났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한국인은 교육의 사다리를 잘 타고 오르며 사회경제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신념을 내면화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교육은 정말 사다리일까? 혹시 사회 전체의 부와 기회가 팽창할 때 교육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은 아닌가? 교육보다는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 경제적 지위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교육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재생산에 활용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가? 만민교육이라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만민을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에 순응하는 주체로 길러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1960년대 말부터 학계에서 심각한 연구 주제였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김신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연구 결과들의 흐름이 말해 주는 것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거나 불평등하게 만드는데 교육이 이렇다 할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녀의 교육이 가정배경에 따라 차등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취한 계층이 교육의 효과라고 해도 그 교육이 능력본위로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화에 기여하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런데 교육이 가정배경에 의하여 차등화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다...교육과 사회평등/불평등이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교육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가 여부는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¹⁾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게 교육이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사회 평등에 이바지하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지위가 높은 계층이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사회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진단에서 공통적인 점은 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국한하여 본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 즉 형식교육의 이런 한계 상황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를 전후로 비형식교육이 개념화된 중요한 맥락이다. 개발도상국의 교육 시스템 구축에 있어 비형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Coombs와 Ahmed는 교육의 제공되는 맥락을 학교의 교실인 형식적인 맥락, 학교 외부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비형식 맥락,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학습하는 무형식 맥락으로 구분했다.²⁾ 학교 밖 교육, 즉 비형식과 무형식 맥락의 중요성 인식은 평생교육 개념의 등장과 맥락을 공유한다. 평생교육은 1972년 유네스코 포레보고서가 개별 국가의 교육개혁의 기본 개념으로 이를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평생교육은 교육이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인간의 생애 과정에서 지속된다는 측면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후자 관점에서 평생교육은 형식교육과 함께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평생교육 개념은 학령기 이후 성인의 비형식교육과 학령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비형식교육에 참여하는 양상을 특별히 강조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비형식교육

2020년 10월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누적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인류가 겪은 어떤 전쟁보다 심각한 인명 피해이다. 대유행으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만큼 피해를 본 분야를 찾기 어렵다. 학교 교육은 그 피해가 학습자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중순 유엔은 190여 개 국가 15억8천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숫자는 전 세계 학생의 94%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것이었다.³⁾ 한국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학교가 2020년 3월 개학을 하지 못했다. 학교 폐쇄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집에

1) 김신일(2015). 교육사회학 (5판). 교육과학사. 299쪽.

2) Coombs, P. H., & Ahmed, M. (1974). *Attacking rural poverty: How nonformal education can help*.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 United Nations. (2020). *Educa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Policy Brief. New York.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식사를 거르는 아동이 늘어났다.⁴⁾ 한국에서는 가정 내 아동 학대 사건 수가 2020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⁵⁾ 초등학생이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연이어 일어났다. 학교 폐쇄는 교육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등화되는 냉혹한 현실도 우리에게 새삼 일깨웠다. 온라인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가 새 일상이 되면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하였지만, 그 전환의 효과는 매우 차등적이었다. 유네스코의 2020년 세계교육현황 보고서의 진단은 대유행 시기 사회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저소득 국가의 55%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온라인 원격 학습을 선택한 반면, 최빈국의 가구 중에서는 12%만이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로테크(low-tech) 접근법도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가장 가난한 20% 가구 중 오직 7%만이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었고, 텔레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 국가 및 중하위 소득국가의 약 40%가 배제의 위험에 처한 학습자를 지원하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3주간의 폐쇄 조치 이후, 8% 정도의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연락이 끊겼다.”⁶⁾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과 계층의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 수업 참여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 대유행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국가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른 모든 위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유행도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와 계층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대유행 초기부터 학교 폐쇄가 학생의 학습 자체를 중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개별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 지속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학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비형식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을 활용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한 다음 사례들은 주목할 만하다.

인도의 마을학습동아리 프로젝트 Village Learning Circles Project in India⁷⁾

인도 Telangana 지역에서는 2020년 봄 국가적인 봉쇄 조치가 해제된 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Village Learning Circles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역사적으로 불가촉천민(untouchables), 우울계급(depressed castes)이라고도 불렸던 지정카스트는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계급이기도 하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Telangana 지역의 Social Welfare Residential Educational Institutions Society(TSWREIS)는 학교가 다시 문을 열기 전까지 교육을 재개하는 방법으로 집, 교회, 절, 커뮤니티 센터, 종교시설, 마을자치사무소, 심지어는 들판에서도 (homes, churches, temples, community centers, panchayat offices or even fields)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이어가는 모임을 기획했다. 학생들은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까지 모였다. 처음에는 교사가 휴

4) 굿네이버스(2020).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 아동권리보장원(2020). 코로나19 대응 아동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5) 손현수(2021). '온라인 수업'의 역설...학교폭력 줄었지만 아동학대는 늘어. 한겨레. 6월 14일.

6) 유네스코(2020). 포용과 교육: 모두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 2020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요약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6쪽

7) Zacharia, S. (2020), India (Telangana): Remote learning and village learning circles for disadvantaged students, Education continuity stories series, OECD Publishing.

대전화의 메신저 앱으로 전해주는, 나중에는 텔레비전으로 송출되는 학습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끼리 공부했다. 학습 자료를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주로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의 공부를 살펴주는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TSWREIS는 학교의 완전한 개방 이전에 5만 개의 Village Learning Circles 운영 계획을 세웠었다. 이 프로젝트 성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종교지도자들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Village Learning Circles은 원격 수업을 학생 개개인이 고립된 상황이 아닌 협동 학습으로 진행하는데도 기여했다.

서울 노원구의 아동복지센터 Children's Welfare Center in Nowon-gu, Seoul

한국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는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들이 있다. 이 시설들은 2020년 4월 대유행의 영향으로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돌봄 외에 학교 학습 지원까지 맡게 되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대유행이 시작될 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틈새 돌봄 시설로 21개 '아이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이휴센터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뒤 학원을 갈 때까지 사이 시간이나 학원이 끝난 뒤 부모님 귀가 전까지 이용하는 시설이었다. 대부분 학교 근처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한두 시간 정도 이용하기 편리했다. 센터에서는 이 시간에 학생들에게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아이휴센터는 아이들이 온종일 머물며 학습하는 공간이 되었다.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대신 센터로 등교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였다. 센터의 종사자들은 교사가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냈다.

Community Hub Initiative in San Francisco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20년 9월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비형식교육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긴급 정책을 도입했다. Community Hub Initiative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Boys & Girls Club, Church, YMCA, Community Center, Recreation Center, libraries, cultural centers, and several community-based organization sites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였다. 2020년 9월 45개 Hub에서 800여명의 학생을 돌보기 시작했다. 홈리스 가정, 위탁 아동 시설, 차량주택 거주 아동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이 시설 이용의 우선 순위였다.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해도 이런 주거 환경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대유행 시기 인도, 한국, 미국의 사례는 학교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비형식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의 존재 의미를 일깨워준다. 그런데, 대유행 이전에도 세계적으로 약 2억5,80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개발도상국일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다. 그렇다고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 문제가 개발도상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은 초중등교육에서 거의 완전 취학을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지

8) CBS SF (2020). San Francisco launches new Community Hubs to provide in-person learning support for kids. September 14. <https://sanfrancisco.cbslocal.com/2020/09/14/san-francisco-launches-new-community-hubs-to-provide-in-person-learning-support-for-kids/> Accessed 23 October 2021.

만, 매년 학령인구의 1%가량이 학교를 이탈한다. 학교 이탈 아동과 청소년은 범죄와 연결될 우려가 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장애인 등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집단들이 학교 교육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학교 밖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개별 국가는 물론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오래된 정책 과업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만민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학교가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학교가 만민 획일화를 부추기기도 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지적은 학교 교육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학교 교육은 교과서로 대표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권위에 기초한 강의식 교육 방법에 의존한다. 또,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급학교로 갈수록 위계화, 서열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력한 선발 장치가 교육 제도 운용에서 작동하고 있다. 교육의 사다리 역할은 이 선발 장치를 통해 강화된다. 선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의 정치 문화적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한다. 즉, 학교는 다양성을 신장하기보다는 획일화된 교육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조건이다. 이주노동, 결혼이주로 국가 간 이동이 늘어나면서 학교 교육에서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하는 것 또한 누구의 관점에서 포용인가라는 비판적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에서 이 문제는 다문화교육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한 한국 사회는 포용을 말하지만, 자칫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다룰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식교육의 대표기관인 학교를 통한 교육 기회의 확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형식교육 일변도로 한 사회의 여러 과업이나 교육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나는 비형식교육이 가진 가치와 의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 비형식교육이 제기된 맥락은 2020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연성: 비형식교육의 특징

비형식교육은 그 단어의 생김 때문에 ‘형식교육이 아닌 교육’으로 손쉽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수학의 집합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는 중첩되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것은 앞서 평생교육의 맥락을 형식, 비형식, 무형식의 삼분법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과 사물이 항상 언어의 재단이나 수학적 논리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표면적인 의미와는 달리 현실의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의 영역 곳곳에 출몰하며 형식교육의 비형식화를 견인하는가 하면 형식교육 바깥에서 형식교육이 되고자 인정투쟁을 벌이는 전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은 인간의 평생에 걸친 학습 즉, 평생학습을 관리하는 제도적, 실천적 개입의 방식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평생학습 개념에서 ‘평생’은 인간 학습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⁹⁾ 첫째, 학습은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다양한 영역에서(Life-wide) 일어난다. 둘째, 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생애 전개 과정에서(Life-long) 일어나는 역사적 현상

9) Kang, D. J. (2015). Life and learning of Korean artists and craftsmen: Rhizoactivity. Abingdon, UK: Routledge.

이다. 셋째, 인생 자체는 학습의 중요한 소재이자 대상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의미를 찾는 (life-deep) 학습을 평생 지속한다. 이런 세 차원의 의미를 지닌 평생학습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형식교육이라면, 다양한 사회 조직들이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비형식교육이라 할 수 있다.

형식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라는 독특하게 조직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 교육은 생애 초반부 20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학교 교육은 학점으로 환산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초등교육은 누구에게나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이후의 상급학교는 입학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까다롭게 허용되기도 한다. 때로는 매우 강력한 선발 제도가 개입하여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형식교육의 참여 결과는 이후 생애 단계의 직업과 지위 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형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전업으로 공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식교육이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제도를 근간으로 발전했지만 비형식교육은 상대적으로 자율성 가진 다양한 사회 조직이 운영해왔다. 비형식교육은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정규학교의 졸업장과는 무관하게 단기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습자들은 학업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드물고 틈틈이 시간은 내어 비형식교육에 참여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수강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교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형식교육과 비교할 때 비형식교육의 매우 뚜렷한 특징은 유연성이다. 비형식교육은 학습자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한다. 비형식교육은 국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전달되는 장이 아니라 학습자의 관심사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만들어 간다. 따라서 교수자 혹은 교육 기획자의 창의력이 적극적으로 발휘된다. 특히, 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획 확장에 비형식교육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전통이 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1910-1945)에 야학(night school)이라고 불리는 민간의 교육 운동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야학에서는 말 그대로 밤에 모여 문해교육과 기초교육을 했다. 야학은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10대와 20대를 위한 비형식교육으로 계승되었다. 야학의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정식 학교로 인가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금도 한국에는 야학 운동을 계승한 비형식 성인 문해 교육기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비문해 성인 인구가 7억7천3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⁰⁾ 비문해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대부분 비형식교육 혹은 대안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형식교육의 유연성은 학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른바 대안학교 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이 배우고자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섬머힐이나 미국의 프리스쿨 전통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교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나타난 대안학교들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었다.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고 학생의 배우는 삶에 유연하게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대안학교는 비형식교육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대안학교는 1990년대 학교의 경직성과 관료성, 그리고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반감에서 생겨났다. 생태주의적 철학에 기초한 교육과정, 교과목이 아닌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는 한국 대안학교 운동의 특징이었다. 2010년대 들어 한국의 초중등학교는 대안학교 운동의 이런 특징을 받아들여 이른바 혁신학교 정책을 도입하였다. 비형식교육이 형식교육을 개혁하는 모

10) <http://uis.unesco.org/en/topic/literacy> 유네스코의 비문해자 수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비문해 성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델을 제시한 것이다.

비형식교육의 유연성은 정보화 혁명 이후 다양한 미디어가 잇따라 출현하고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가 보편화하면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비형식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양한 포털 사이트나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다. 유튜브도 학습용 콘텐츠로 넘쳐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이동 중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전문 분야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인들도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온라인 비형식교육의 강사로 나서고 있다. 형식적인 교사 자격보다 학습자에게 강의의 질적인 수준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의 비형식교육 플랫폼 기업들은 영역 전문가의 강좌 개발과 교수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한편, 형식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나 교수의 강의도 비형식교육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MOOCs가 대표적이다. MOOCs는 학점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수강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학에 등록해야 들을 수 있었던 강의를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K-MOOCs 콘텐츠를 방송국과 연계해 제작하고도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교육방송(EBS)와 함께 제작한 Great Minds 프로그램은 해외 학자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형식교육 역할 확장을 위한 정책

비형식교육의 유연성은 학교 교육 비판론자로 유명한 이반 일리히가 구상했던 학교 없는 사회의 대안적인 교육과 연결된다.

“훌륭한 교육제도는 세 가지 목적을 가져야 한다. 첫째,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그 나이에 관계없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그로부터 배우고자 원하는 사람을 찾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 공중에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도전을 알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¹¹⁾

이 세 가지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평생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평생교육 정책의 확장은 비형식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은 2000년 평생교육법(Lifelong Education Act)이 시행된 이후 25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09년 28%에서 2014년 36.8%, 2020년 40%로 높아졌다. 평생학습 참여 중 형식교육 참여율은 2009년 4.3%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0년에는 1.4%가 되었다. 비형식교육 참여가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여온 것이다. 비형식교육의 확장은 200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대학,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백화점 같은 사업장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1997년 15개였는데 2020년에는 475개로 확대되었다. 2020년 현재 전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4,541개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상 교육과 큰 관계가 없다고 여겨졌던 다양한 사회 시설에서의 비형식교육 확장도 일어났다. 도서관, 복지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문화시설 등 본래 목적이 교육이 아닌 사회 시설들이 이용자들에게 비형식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11) Illich, I. (1971). Deschooling society. Harper and Row. p. 91. 박흥규 역(2009). 학교 없는 사회. 생각의나무. 152쪽.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비형식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 외에도 한국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해이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였는데 이 역시 역사상 가장 낮은 것이다. 2000년의 합계출산율은 1.48이었다. 한국은 2018년 인구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소위 제3기 인생 시기의 증가를 불러온다. 인생 제1기는 출생으로부터 학교 교육을 받는 시기, 제2기는 직업 생활에 종사하는 시기, 제3기는 은퇴이후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시기, 제4기는 건강이 악화하며 사망에 이르는 시기이다. 고령화는 제3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제3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물론 달라진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고령자의 비형식교육 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비형식교육의 확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의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하나는 비형식교육 참여를 위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2020년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중요한 정책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비형식교육이 그 역할을 공고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학습비 지원 정책: 평생교육바우처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반적 증가해왔지만, 소득 수준, 학력 수준에 따른 격차가 상당하다. 2020년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참여율은 45.4%이지만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은 29.7%로 15%p 이상의 차이가 있다. 또,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의 참여율은 51.5%이지만 중졸 이하 학력 소지자는 28.4%이다. 소득 간, 학력 간 참여율의 격차는 지난 10년 동안 별로 좁혀지지 않았다. 비형식교육 참여에 있어 경제력과 학력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이다. 학교교육의 차등화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의 영향이 큰 것과 유사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3.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한국 사회에서 고령층은 학력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2020년 기준으로 55~6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24.4%로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8%의 3분의 1 수준이다.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평생교육바우처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경비를 1인당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수혜자들은 전국의 약 1,700여 개 비형식교육 기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바우처 정책으로 생애 처음 평생교육에 참여한 이들도 적지 않다.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 이전 평생교육 강좌 수강 경험이 없던 이들은 경제적 부담(36.3%)을 평생교육 참여를 막았던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평생교육 바우처 수혜자는 바우처 금액만큼 평생교육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이들은 바우처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이들과 비교할 때 매월 약 2.6만원을 평생학습에 추가 사용하였다. 바우처가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¹²⁾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바우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에서 2020년 최우수상을 받은 김미라 씨의 경험은 비형식교육의 강력한 힘을 잘 보여준다. 자녀 둘을 출가시킨 후 노년

12) 변중임 · 홍준희 · 박윤수 · 조순옥 · 김용성 · 박소현(2019). 평생교육 바우처 성과분석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의 삶을 고민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씨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으로 떡 제조법을 배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디저트 만드는 법을 추가로 더 배운 김 씨는 공방을 창업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이 공방은 김 씨의 작업장이기도 하지만, 이웃의 학습 부진 아이들의 공부방이기도 하고 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기도 하다. 소액의 평생교육 바우처가 김씨의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학습 결과 인정 정책: 학점은행제와 평생학습계좌제

일리히는 훌륭한 교육 제도의 요건으로 교육 관련 정보 자원이 모두에게 잘 전달되는 것을 강조한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이 교육 정보를 언제든 어디에서든 유통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학교 없는 사회의 대안으로 제안했던 학습망의 실현은 바로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달려있다. 50여 년 전 학습망이 제안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디지털 정보 기술로 전 세계의 교육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다. 교육의 기회도 온라인을 통해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비형식교육의 확장은 비형식 맥락에서 학습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활용하려는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형식교육은 학력 인정을 통해 사회적 활용이 되는 것과 달리 비형식교육은 자격증 취득 외에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교육 정책을 복지나 고용 등 다른 사회 정책과 연계할 수도 있다.

한국은 비형식교육의 결과를 인정하는 두 가지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학점은행제(www.cb.or.kr)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는 물론 학교 밖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하면 교육부 장관이 전문학사 혹은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 밖 비형식교육 과정을 사전에 평가해 학점은행 평가인정 과목의 지위를 부여한다. 학습자는 원하는 비형식교육 기관에서 평가인정 과목을 학습하고 이를 누적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정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도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그 외에 국가 공인 자격도 학점으로 환산해 인정한다.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정의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1998년 시행 이후 2020년까지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는 약 185만 명에 달한다. 2020년도에 학습자들은 약 1,060만 학점을 취득하였다. 이 중 비형식교육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이 74.4%이고, 정규 대학교 이수 학점이 17.7%, 자격을 환산해 인정받은 학점이 5.5%이다. 그동안 학점은행제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83만여 명에 달한다.

또 다른 비형식교육 인정 제도는 평생학습계좌제(www.all.go.kr)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개인 학습자는 학력, 경력, 자격, 평생학습 이수, 기타 자기주도학습 내용을 누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가가 공인하는 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2020년 말까지 학습계좌를 개설자 수는 42만여 명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형식교육 과정을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등록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현재 초·중·등학력 인정 제도와도 연계되어 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학습자의 개인 필요에 따라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점 인정, 검정고시 과목 면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 면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비형식교육이 확장될수록 평생학습계좌제의 활용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Non-formal education as a bridge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형식교육 기관으로 학교는 이제 2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녔을 뿐이다. 교육을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학습에 관여하는 실천과 제도로 정의한다면, 비형식교육은 비록 개념화는 더 늦었지만, 형식교육 이전부터 존재했던 교육의 본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육은 본래 비형식이다. 비형식인 본래의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보다는 인간으로서 지적, 인격적 성숙을 근본 목적으로 삼았을 것이다. 지적 성숙을 도모하는 교육은 인간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세계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안내한다. 지식은 다양한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는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깊이 관계 맺는 것을 돕는다. 자아의 성장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 속에서 참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자기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학습자 내면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교육의 본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이 다리를 잘 놓을 때 비로소 교육의 사다리 역할도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확장 속에서 부상한 비형식교육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빨라진 디지털 사회 전환 과정에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비형식교육의 유연성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사람과 세계의 변화를 도모하고, 교육의 과정과 결과로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교육자, 교육기획자들이 비형식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인 이들의 삶과 세계에 더 단단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비형식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비형식교육으로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더 창의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형식교육의 혁신을 견인하며 교육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묵묵히 다리를 놓고 있을 비형식교육 현장의 실천가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일리히 인용문 원문)

“A good educational system should have three purposes: it should provide all who want to learn with access to available resources at any time in their lives; empower all who want to share what they know to find those who want to learn it from them; and, finally, furnish all who want to present an issue to the public with the opportunity to make their challenge known”